

사설

경승단 10년 재발심하자

대한불교경승단 발족 10년, 조계종은 1월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승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민중의 지팡이인 전 경찰의 정신적 동반이 되고 치안유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되기 위해 10년간 경찰의 날인 12월10일을 경승의 날로 정한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처음 경승단이 발족될 당시 전 불교계는 대단한 기대를 가졌고, 치안본부에 위촉된 스님들은 크나큰 위용과 포부를 가지고 경승단 발대식에 이어 전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불교도 교화활동을 할 수 있게겠다는 점에 적지않은 희망을 가졌었다.

사실 이땅에 1,600여년의 역사를 갖고 한반도의 민중종교로 자리잡아온 불교가 100여년 밖에 안된 타종교에 밀려 군이나 경찰에 포섭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어정쩡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들어가서 못했을 때는 잡긴 문을 보고 투쟁이라도 했지만, 문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벌써 10년이 흘렀는데도 그 노릇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언가 크게 반상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된다.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각 경찰서에 위촉된 경승은 560여명(조계종 363, 태고종 77, 기타 100)으로 기독교의 경목 1,867명에 비하면 1/3 수준이며, 25개 경찰서중 197개소에 경승이 위촉되어 있으나 경승실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겨우 67개소이며, 경찰불자들의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곳은 고작 10여곳에서만 직장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승이란 이름만 있을 뿐 활동은 5%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도 타종교에 비해 열세이면서 활동마저 부진한 상태이고 보면 불교계와 경승단 전체가 재발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승단이 발족할 때의 열기와 개혁 종단의 의지를 되살려 경승단을 재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몇가지 재건 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을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활동이 미진한 곳은 독려하고, 경승이 없는 곳은 추천하여 전 경찰서에 경승이 위촉되도록 하고 각 경찰청과 경찰서의 연대조직으로 단합된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경승의 자질향상이다. 경승단은 발족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동국대학, 중앙승가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일반대학 출신자로서 지방승가대학을 마쳤거나 지방승가대학을 이수해 현실감각에 맞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아졌다고 본다. 경찰의 특수성을 익힐 수 있는 특수교육이 실제 법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찰서마다 경승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거중단적 차원에서 정부와 타협하여 투쟁을 해서라도 경승실을 확보하고 타종교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넷째, 경승실 운영에 따른 지원확보이다. 종단차원의 예산이나 포교자료 지원도 필요하지만 해당구역내에 있는 주지나 포교사의 행정적 지원이 보장되어 지속적인 경찰서 교화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종단이 들어서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여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어두움을 밝혀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불교가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금년은 조계종이 '전법의 해'로 정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더욱 강도높게 실현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 새삼 기대해 보고 싶다.

종단의 표제도 중요하지만 경승의 책임을 위촉받은 개개인도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전법활동의 최일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드라마 속 종교갈등

PC통신 의견모음

○...이 드라마는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에 관해 잘못된 편견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불교는 운세나 점에만 집착하는 등 너무 미신적인 종교로 표현되고 있고, 기독교는 너무 권위적인 면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소재를 시도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전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SOODAE>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특정 종교를 너무 폄하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참신한 주제와 긴장감있는 내용 전개가 돋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높이 사고 싶다. 물론 나도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다음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결된 것도 같다. <MINSJ>

○...불교와 기독교는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우리들엔 종교에 대한, 특히 타 종교에 대해 선입견

이 많다. 내가 보기에 이 드라마는 종교때문만은 아니다. 극중 영화업자의 과거가 더 큰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종교라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극적 효과를 위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BS0309>

○...종교라는 예민한 소재를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앙인들의 생활에 비해 드라마에서는 그 표현이 너무 서툰 것 같다. 내용 자체도 약간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성도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길... <SSHS1006>

○...드라마를 좀더 극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중

사랑하는 두 남녀가 양 집안의 불교와 기독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결혼이 큰 장애에 부딪치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던 소재인 종교를 배경으로 청춘 남녀의 사랑과 결혼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MBC 주말연속극 '사랑한다면'은 특히 다종교국가인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드라마 '사랑한다면'의 극본을 맡은 작가의 말과 함께 PC통신에 쏟아진 각 의견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교를 너무 왜곡되게 표현한 것 같다. 극중 양기영씨의 목하면 쓰러지는 역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 소수의 부유층과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보다는 진실하고 현실감있는 드라마를 방영했으면 한다. <SONATEN>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로부터 두 종교를 비교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종교에 민감하다. 이 드라마를 많은 종교인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드라마를 전개해 나가길 바

종교소재 참신...결혼 본인의사 중요 특정 종교 단면 부각 객관성 보완을



◇드라마 '사랑한다면'의 한 장면.

라. <BITRO>

○...도대체 영화(심하 분)는 어떤 인물에게 매일 우는걸까. 아니 작가는 왜 영화를 매일 울리는가. 영화는 마치 저능아 같다.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가 다 모든 것을 챙겨주고 아버지가 반대하면 핍박을 못하냐? 그건 일종의 가정폭력 아닌가? 왜 당당하게 자신의 표현을 못하는가? 자음이 조선시대인가? 부모가 짝지어 준 사랑과 결혼해야만 하는가? 작가에게 묻고 싶다. <VITAMINE>

위 내용은 PC통신 MBC On Line 전자게시판 음부즈맨에서 발췌.

삶의 다른 방식 화해과정 그려

최성실 <'사랑한다면' 작가>

우리는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원래 한무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종교의 벽은 점점 더 높아만 간다. 사실 종교문제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으로 대중매체에서 작품화하기를 꺼려온 소재다. 그러나 종교 인구가 전국민의 반을 넘는 현실과 다종교사회인 우리 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면'은 이같은 우리의 현재상황을 드라마라는 도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제작했다.

극중 주인공인 영화(심하 분)와 동휘(박신양 분)는 집안의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한다. 이 드라마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한다면 결혼해야 한다는 해피엔딩적인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후 양가의 문화적 갈등도 중요한 갈등요소로 드라마에 투입될 것이다. 결국 '사랑한다면'은 요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종교를 왜곡하거나 미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적 토대를 지닌, 다시말해 제각기 다른 삶의 방식속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이 그 속에서 공통성을 찾고 합일되는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부종교갈등 상담사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종교문제는 있다. 특히 부부의 종교가 다를 경우 그렇다. 얼마전 30대의 불자인 부인이 기독교신자인 남편을 불교로 인도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해 왔다. 이럴 때 우선은 부부 상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자세와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부인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며 부처님의 정법대로 생활하다 보면 남편 또한 부인의 모습에 감화를 받게돼 불교 포교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상담을 해주었다. 드라마 '사랑한다면'도 그러한 종교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교문제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드라마로 전개됐으면 한다. 조현숙 (지비의 전화 상담원)

신뢰 · 사랑있으면 갈등해소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

1997년 1월 현재

단위조직명	단위조직장	연락처
강릉지사	전유진	(0391)661-9317
고양지국	진중수	(0344)912-2323
공주지국	양종운	(0416)55-0020
광주지사	유종희	(062)375-9996
대구지사	김종구	(053)768-8008
대전지사	박현권	(042)625-1080
마산·청원지사	이창희	(0551)84-0735
목포지국	박남순	(0631)281-2534
부산지사	이종관	(051)634-5114
백내전 지국	황영숙	(032)541-8770
속초지사	박혜란	(033)636-3923
안산지사	박연필	(0345)408-0361
인천지사	이동구	(032)461-3461
영주지국	박영애	(052)334-3429
제주지사	임조형	(064)55-9900
춘천지사	박민호	(0361)241-0533

(가나다순)

현대만평

현대의 불교도 세계화



불교도 세계화

737-0691

목어

법 그대로 40~50분 걸리는 동방해탈주를 열불한다. 새해 첫날을 불정암에서 맞은 지복스님(송광사)은 성도절 아침 대성스님이

불정암의 대성스님

아기를 했다. "강한 장사아래 약한 사병 없다더니 조계산 활안스님의 체취를 설악산에서 느낄 수 있어 몹시 기쁘고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사님을 칭찬하며 가르침대로 열불하는 효성과 대성스님을 보며 은사 존경심에 감동했어요." 은사의 법명을 말할때면 꼭 첫자앞에

'上' 아래자앞에 '下' 자를 붙이는 지복스님이기에 대성스님의 모습이 더욱 눈에 들어 왔는지도 모른다.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삼키고, 못 보았을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하느니라." <중심경>

눈앞의 스승 삼키기를 다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불자라면 마땅히 인친의 스승이신 우리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다. 부처님 섬김은 무엇인가. 성도이후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완성으로 이끄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여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퍼어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성도절을 기리는 의미가 있리라.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응보전(법당)기공식 법회 안내

일시 : 대각응세 정축년 음력 1월18일 지장재일
서력기원 1997년 2월 25일 사시

장소 : 네팔 바브라하와 루판데히 룸비니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大聖釋迦寺)

소생 각현 법신은 은사경 법사신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佛心 도문 법사의 지도로 대각응세 을해년 서기 1995년 4월 8일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 대성석가사 주지 소임을 감당하여 이세에 이르렀습니다. 소생 각현 법신은 1년 10개월 동안 이 불탄 성지에 머물러 서울 종로 대각사,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부산 남부민2동 천마산 중생사, 경주 내남 용장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의 스님네와 뜻있는 신도들의 성원과 성지순례의 4부대중의 동참과 뜻있는 불자들의 후원 특히 관음행 나경화 보살님의 특별 시주금 3억원을 기증하여 순정각행보살님 내외불자들의 후원과 정자현심 보살님 내외분의 회로로 대내외적 만반 기반을 세운위에 제1요사 3층 7백50평을 창건하였습니다. 룸비니 개발위원회 특다산 전위원장님과 삼부도전 네팔주재 정대목과장님과 동국대학 사찰 조경연구소 홍광표소장님의 부지 임차의 성취와 네팔 카투만두 코네포사장 광光 정현일 거사님 자재행 운석내외불자들의 후원과 지도로써 자체 공금을 위시해서 15년간의 네팔에서 사업 활동하신 지혜와 기술자 지원 그의 대소사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사비가 10분의 1의 경비로 제1요사 3층 750평의 창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현 박시민 수승행 한명옥 내외불자들의 인원으로 수원 지성설계사무소 손재석 사장님의 제1요사 건축설계의 지원과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신도회고문 용현 박시민 거사님 부회장 수승행 한명옥 내외불자님께서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삼존성상을 조성하여 불불 점안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수도의 표본으로 교화의 지침으로 중생의 복전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 대각사 총무 각현 청정스님과 대각회 이태석 사무국장님, 김용춘사무장님, 민경계 사무장님, 김법왕님, 한건덕님, 오성덕님, 정만행님, 정자현님, 홍정자, 정수현심회장님 등과,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총무 주진스님, 정법인화사무국장님, 신법왕덕사무장님, 이우량사무장님, 이사리불, 황대광화, 하길상화, 김반야행, 한문수화, 양대직행, 한심지화, 한보현화, 한관음화, 정대법화, 한수승행, 윤자재행, 문금강수, 강묘각화, 왕보리안, 손정각행고문님들과, 부산 중생사 주지 금정스님, 백정혜원, 조성지화, 배명선행, 옥약양화, 옥삼매화, 김원일화회장님 등과 경주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강금강님, 서문수화, 강무량화, 박대명님, 김관음주, 차대법화회장님을 위시로한 거룩하신 스님네와 뜻있는 신도 제위의 후원으로 이 불사가 순조로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느님을 위시로한 천룡팔부신중님의 가르침으로 우기철이지만 대성석가사 주위에는 비가오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다음해 우기철에는 수심년만에 처음으로 많은 비가 와서 룸비니 국제사원구역내 모든 사원에는 물이서며 넘쳐버렸지만 대성석가사에는 수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백제불교 초전법륜성지 서울 서초동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 부원불사 성취와 2)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구미 선산 도개동 아도모례원에 도래장자 신라의 옛집 부원불사 성취와 3)호국호법신라고도 경주 시 내남면 용장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부원불사 성취와 4)가야불교 초전법륜성지 창원 불림동 불림산 불림사 불림선당 부원불사 성취와 5)용성진중조사 탄생지 죽림리 생가부원 불사 성취와 국외적으로 6)부처님 이 성도하신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과 7)최초로 설립하신 바라나시 북

야원과 8)오래 주석하신 기원정사와 9)일법하신 구시나나라 사라쌍수원에 대성석가사 창건불사 성취인 용성진중조사 유훈 열가지 조목이 낱알이 실현되기를 발원하면서 대각응세 정축년 음력 1월 18일 지장재일에 관음행 나경화 불탄 성지 룸비니 대성석가사 창건주를 위시하여 우리나라 불교 사부대중은 물론이요, 온겨레 전인류 만중생 다함께 석가여래부촉법 제 68세 용성진중 대사의 유훈 10가지 조목을 낱알이 실현하여 불교중흥과 민족중흥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의 성취와 동서평화의 달성으로 일체중생 성불인연 되어지기를 발원하면서 10)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응보전(법당) 기공식 법회에 동참해 주시용기를 국내외 4부대중 7중불자 제위에게 우러러 알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석가여래부촉법 제 68세 용성진중 조사 유훈 십사목 실현 성취를 위해 이 국내외 10대 성지 가구기를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불심도문 법사께서 국내에서 지도하고 지휘하여 이 10대 대각 불사를 일시에 다함께 성취하기를 발원하옵나니 한국에 성지 가구기 1만원씩 열근대 성지가구기 20만원씩의 실시일반의 수회 동참으로 불사 성취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창건주는 관음행 나경화보살님이시고, 불타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원 창건주는 대원행 박귀선보살님이시며 불타 초전법륜성지 창도 바라나시 북야원의 창건주는 대심행 전연심보살님이십니다. 이 세분 창건주 보살님들께서는 크신 인력을 세우시고 깊은 심신을 내셨음을 제불보살님과 천룡팔부 신중님과 만 천하 4부대중에 우러러 고하옵나니.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 국제사원 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 법신 합장. 전화) 001-977-71-29474

국내연락처 서울 종로 봉익동 대각사 전화: 765-0972 팩스: 742-2126
서울서초구 우면산 대성사 전화: 583-1475 팩스: 583-2700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중생사 전화: 051242-4234 팩스: 051244-8468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전화: 0561748-8815

승금 계좌번호 농협 001-01-293325
거래명 (우면산 대성사) 임운화